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과의 관계

이순희¹ · 김신정² · 이영주³ · 김숙영⁴

충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¹,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², 신흥대학 간호과 교수³, 서울여자간호대학 교수⁴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Lee, Soon Hee¹ · Kim, Shin-Jeong² · Lee, Young Joo³ · Kim, Sook Young⁴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⁴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nd to examine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Methods:** One hundred and thirty migrant workers were sampled from two churches located at Seoul and Gyeonggi-do in order to collect basic data on migrant workers from August to December, 2007 using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test. **Results:** 1) The average scores of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were 3.73 ± 0.31 and 2.57 ± 0.31 , respectively. 2) With respec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suppor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oneliness according to religion ($t=2.586$, $p=.001$).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was not significant ($r=.010$, $p=.929$). **Conclusion:** So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in nursing intervention to decrease the level of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More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variables influencing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Key Words : Social support, Loneliness, Migr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하게 유입된 사회적 배경은 1990년대 초까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였던 노동환경이 1990년대 초부터 주택건축 붐을 타면서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 대거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에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심각한 노동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더불어 이 시기에 국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되면서 소위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우리보다 임금이 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외

국인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거역할 수 없는 사회변화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에의 어려움, 가족과의 이별, 향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낯선 환경에의 적응이 쉽지 않으며(Kim, Baik, & Kim, 2003)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Roh, 2004).

특히,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주요어 : 사회적 지지, 외로움, 외국인 노동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ook You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287-89 Hongje-dong, Seodaemun-gu, Seoul 120-742, Korea. Tel: 82-2-2287-1733, Fax: 82-2-395-8018, E-mail: full0625@hanmail.net

투고일 : 2008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5일

하는 욕구가 있는데 타인과의 접촉에서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Shearer & Davidhizar, 1994) 외로움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내향적이 되며 소심해지고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외로움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만족이다(Sarason & Sarason, 1985).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외로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Kim et al., 2003), 사회적 지지자들이 적거나 지지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경우 외로움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Kim & Baik, 2003). Laura, Morton, Miriam과 Edward(2005)에 의하면 음식이나 쉼터, 금전적 수입, 건강관리 및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얻는 것 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를 알아 본 연구는 있으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사는 사회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이들의 복지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지적 간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실태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외국인 노동자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타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합법조치를 마치거나 4년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2) 사회적 지지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Park, 1985)로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중 지지내용을 측정하는 2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3) 외로움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지지망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기대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감정(Peplau & Perlman, 1982)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LS)을 Kim(199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정확한 숫자와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임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련 지원 단체들과 종교단체의 협조 하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무료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곳의 무료건강검진센터는

의사와 간호사의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매 2주마다 일요일에 열리는 곳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이었다. 연구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무료건강검진센터 책임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서면으로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구두로 연구의 목적을 재차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외국인 노동자 건강검진센터에서 연구자와 함께 2년간 자원봉사자의 경력이 있는 연구 보조원 6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참여하였는데, 자료수집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센터를 방문한 대부분의 외국인이 조선족이었으나 이들이 한국말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일 대 일로 앉아서 문항을 하나씩 읽어 주면서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은 자료수집을 하기 전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3회 가졌으며 10명의 사전조사를 통해 일치도가 98.3%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족의 경우는 한국어로 설문이 가능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인 등의 경우처럼 한국어로 된 설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국민에게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이때에는 연구보조원이 한국말로 문항을 읽어주면 통역자가 이를 통역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말해주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통역의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자료수집과정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문지를 보여주고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통역자가 통역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항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질문하는 경우에만 문항의 내용을 재차 알려주어 자료수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40분 정도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150부였으며 조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140부(93.3%)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0부(수거된 설문지 중 92.9%)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사회적 지지 25문항과 외로움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회적 지지 도구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중 지지 내용을 측정하는 25문항을 이용하였다. 정서적 지지 8문항(1, 6, 7, 8, 10, 16, 18, 24번), 정보적 지지 5문항(15, 17, 19, 22, 25번), 물질적 지지 6문항(3, 9, 13, 14, 20, 23번), 평가적 지지 6문항(2, 4, 5, 11, 12, 21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93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65$ 로 높게 나타났다.

2) 외로움 도구

외로움 도구는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이 개발한 개정된 UCLA 고독감 도구(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로 Kim(1997)이 번역과 역번역을 사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이다. 이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자주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된 20문항(긍정적 문항 10개, 부정적 문항 10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문항의 경우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93(Kim, 1997)과 .83(Kim & Baik, 200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868$ 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는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의표집 방식을 취해 자료수집을 한 것이어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참여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이들 간의 일치

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조선족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자국어로 통역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어 설문지를 각 국의 자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0명으로서 남자가 31.5%(41명), 여자가 68.5%(89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1~72세의 범위로 평균 46.07±13.01세 이었다. 대상자는 조선족 70%, 필리핀 4.62%, 몽골 3.85%, 우즈베키스탄 1.54%, 베트남 6.15%, 러시아 0.77%, 파키스탄 0.77%, 인도네시아 11.54%, 태국 0.77% 이었다. 대상자의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70.9%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7.6%, 기타가 1.6%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76.9%이었는데, 종교는 기독교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무슬림이 14.8%, 이슬람이 9.3%, 천주교가 5.6%, 불교가 3.8%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70.0%가 기혼상태이었고 16.9%가 미혼이었으며 그 외는 별거(3.1%), 이혼(3.8%), 사별(6.2%)의 상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24.4%), 대졸(21.3%), 초졸(7.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온지는 1개월~10년 11개월의 범위로 평균 3년 5개월이 되었으며 현재 하는 일로는 노동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가정부, 파출부가 23.3%,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가 19.4%, 간병인이 2.3%, 기타가 24.0%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연락은 월 1~30회의 범위로 평균 8.6±9.7회로 나타났으며 연락방법으로는 전화가 94.1%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e-mail이 4.2%,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통해서'가 1.6%로 나타났다. 한국에 모국 공동체가 있는 경우는 34.7%이었으며 공동체가 있는 경우 하는 일은 '친목도모'가 54.1%, '직업알선'이 24.3%, '언어교육'이 10.8%, '한국에 대한 정보교환'이 8.1%, '문제발생시 해결'이 2.7%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3.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인 친구 수는 평균 7.6±12.5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대해 52.6%가 '숙소에서 휴식한다'고 하였으며 21.6%는 '운동한다'고 하였고 '모국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15.8%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로는 43.6%가 컴퓨터, 32.0%는 한국어라고 응답하였고 13.7%는 한국문화의 전통놀이라고 대답하였다.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3±0.66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2.57±0.31점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는 모두 보통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영역별로 보았을 때 평가적 지지(3.7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3.5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The Degree of Subjects' Social Support, Loneliness (N=130)

| Variables | Min | Max | M ± SD |
|---------------------|------|------|-------------|
| Social support | 1.00 | 5.00 | 3.73 ± 0.66 |
| Emotional support | 1.38 | 5.00 | 3.71 ± 0.72 |
| Informatics support | 1.60 | 5.00 | 3.68 ± 0.71 |
| Material support | 1.17 | 5.00 | 3.51 ± 0.80 |
| Evaluative support | 1.17 | 5.00 | 3.79 ± 0.69 |
| Loneliness | 1.00 | 4.00 | 2.57 ± 0.31 |

외로움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항별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가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다'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가 각각 3.28점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누구와도 친하지 않다'가 1.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가 1.83점이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감을 느낀다'가 1.92점의 순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외로움 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외로움 정도는 종교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86, p=.001). 즉,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86, p=.011).

Table 2. The Degree of Loneliness of Subjects according to Item (N=130)

| No | Content | M ± SD |
|-------|---|-------------|
| 1* | I join well my neighborhoods | 3.28 ± 0.77 |
| 2 | I have few friend | 2.14 ± 0.87 |
| 3 | There's nobody to seek help surrounding me | 1.99 ± 0.88 |
| 4* | I feel I'm not lonely | 2.81 ± 0.99 |
| 5* | I am happy when along with my friends | 3.40 ± 0.70 |
| 6* | I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my neighborhoods | 3.13 ± 0.80 |
| 7 | I have no any intimate person | 1.77 ± 0.82 |
| 8 | I don't share my concern with my neighborhoods | 2.05 ± 0.94 |
| 9* | I am extroversive and active | 2.97 ± 0.84 |
| 10* | I have many intimate person | 3.08 ± 0.85 |
| 11 | I feel abandoned | 1.83 ± 0.84 |
| 12 | I don't close connect with others | 2.08 ± 0.90 |
| 13 | Nobody knows me | 1.96 ± 0.88 |
| 14 | I feel sense of alienation | 1.92 ± 0.95 |
| 15* | I have friends to meet when I need | 3.21 ± 0.86 |
| 16* | I have friends who understand me heartily | 3.19 ± 0.86 |
| 17 | I feel sad as like be shunned | 1.96 ± 0.91 |
| 18 | People don't understand me although they are surrounding me | 2.11 ± 0.94 |
| 19* | I have people to talk with | 3.19 ± 0.87 |
| 20* | I have people to get help | 3.28 ± 0.79 |
| Total | | 2.57 ± 0.31 |

*reverse item.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와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 정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10, p = .929$).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과 정서적 지지($r = .033, p = .759$), 외로움과 정보적 지지($r = .029, p = .786$), 외로움과 물질적 지지($r = -.017, p = .872$), 외로움과 평가적 지지($r = .010, p = .927$)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IV. 논 의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3D 업종에의 취업 기피현상

에 따라 1989년 무렵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하게 된 이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제조업 부분의 극심한 인력난을 일부 해소하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사회적 역기능과 사회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Sung, Han, & Kim, 1997). 그들은 체류의 불법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우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73점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간 값보다 높은 것으로 비교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3)의 연구에서는 조선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Sarason, Sarason, Shearin, & Pierce (1987)이 개발한 6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4.83으로 '약간 만족한다(4점)'와 '꽤 만족한다(5점)'의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

Table 3. The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Lonelines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 Characteristics | Classification | No | Social support | | Loneliness | |
|---|----------------|-----|----------------|------------|-------------|------------|
| | | | M ± SD | t or F (p) | M ± SD | t or F (p) |
| Gender | Male | 41 | 3.58 ± 0.68 | -1.649 | 2.57 ± 0.21 | -0.078 |
| | Female | 89 | 3.81 ± 0.63 | (.102) | 2.58 ± 0.32 | (.938) |
| Age (yr) | < 35 | 32 | 3.69 ± 0.53 | | 2.52 ± 0.28 | |
| | ≥ 35 ~ < 50 | 25 | 3.82 ± 0.47 | 0.401 | 2.66 ± 0.30 | 1.013 |
| | ≥ 50 ~ < 60 | 56 | 3.64 ± 0.84 | (.752) | 2.60 ± 0.29 | (.391) |
| | ≥ 60 | 17 | 3.81 ± 0.52 | | 2.53 ± 0.32 | |
| Religion | Have | 100 | 3.79 ± 0.60 | 0.714 | 2.51 ± 0.30 | 2.586 |
| | None | 30 | 3.69 ± 0.69 | (.477) | 2.67 ± 0.30 | (.011) |
| Live with spouse | Yes | 65 | 3.80 ± 0.58 | -1.642 | 2.57 ± 0.30 | .381 |
| | No | 65 | 3.59 ± 0.78 | (.147) | 2.59 ± 0.34 | (.704) |
| Residence period in Korea (yr) | < 2 | 45 | 3.67 ± 0.66 | | 2.56 ± 0.38 | |
| | ≥ 2 ~ < 5 | 51 | 3.79 ± 0.70 | 0.313 | 2.57 ± 0.27 | 0.022 |
| | ≥ 5 | 34 | 3.72 ± 0.60 | (.732) | 2.58 ± 0.28 | (.978) |
| Kinds of job | Worker | 41 | 3.67 ± 0.78 | | 2.63 ± 0.32 | |
| | Serving | 30 | 3.95 ± 0.45 | | 2.69 ± 0.34 | |
| | Maid | 25 | 3.52 ± 0.68 | 1.258 | 2.40 ± 0.32 | 1.646 |
| | Care aid | 3 | 3.46 ± 0.25 | (.293) | 2.51 ± 0.24 | (.170) |
| | Etc. | 31 | 3.81 ± 0.64 | | 2.59 ± 0.30 | |
| Communication numbers with family (times) | < 5 | 77 | 3.59 ± 0.68 | 0.934 | 2.58 ± 0.36 | 0.274 |
| | ≥ 5 | 53 | 3.74 ± 0.62 | (.353) | 2.55 ± 0.27 | (.785) |
| One's country community | Have | 45 | 3.76 ± 0.74 | -0.330 | 2.56 ± 0.28 | 1.245 |
| | None | 85 | 3.71 ± 0.43 | (.743) | 2.66 ± 0.35 | (.217) |
| Korean friend | Have | 95 | 3.75 ± 0.65 | 0.827 | 2.49 ± 0.36 | 1.378 |
| | None | 35 | 3.62 ± 0.70 | (.410) | 2.60 ± 0.29 | (.172) |
| Number of Korean friend* | ≤ 3 | 63 | 3.67 ± 0.58 | -0.528 | 2.63 ± 0.30 | 0.293 |
| | ≥ 4 | 32 | 3.76 ± 0.65 | (.600) | 2.60 ± 0.30 | (.771) |

*no response subjects do not included in this characteristics

Table 4. The Relationship of Subjects'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N=130)

| | Social support | |
|------------|----------------|------|
| | r | p |
| Loneliness | -.010 | .929 |

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평균 1~2 명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대상자의 76.9%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과의 연락도 평균 8.6회로 적지 않은 편이었고 한국인 친구 수도 평균 7.6명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직장생활과 종교생활, 친구생활 등을 적절히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Seol(1996)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한국인이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 주어도 친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가 친구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의 수만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친구'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나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Kim 등(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족의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자신들이 한국민과 외모나 언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분상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심리적으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는 조선족이 70%였고 다른 국가의 노동자가 30%였기 때문에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존재가치나 자신의 취한 행동에 대해서 주위사람들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연는 지지로서 평가적 지지 문항 중의 하나인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물질적 지지란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통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문항내용으로는 '돈이 필요할 때 기꺼이 마련해 준다', '내가 아플 때 내 일을 대신해 준다',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 등의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직장이나 종교생활, 기타 다른 사회생활에서는 비교적 인격적인 대우는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eol(1996)은 외국인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부분은 본국 노동자들끼리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Kim, Lee, Lee와 Hong(2001)의 보고에 의하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소속된 한국의 직장이나 동료가 아닌 대부분이 본국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생겨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의료공제회 가입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 의원과 무료진료소(전국적으로 708개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 무료진료소에만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병, 의원 및 무료진료소에 관하여 이주노동자 대상 대중홍보 캠페인을 벌여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캠페인은 또한 병·의원 및 무료진료소 종사자로 하여금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상자의 외로움의 정도는 4점 만점에 2.57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가정 노인이나 대학생들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외로움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했던 Kim 등(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외로움의 정도는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Kuo와 Tsai(1986)는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 내적인 의지 및 노력을 지적하였는데 이들의 경우도 한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정도차이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외로움의 경우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외로움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독교 재단에서 경영하는 쉼터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적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Chung(1999)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낯선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모국인,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등의 교제활동을 한다고 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교제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도 종교활동을 통해 서로 신앙생활뿐 아니라 친목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나아가 이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 계수($r=-.010$, $p=.929$)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타 문화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코리안 드림'을 얻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도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로움의 정도도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경우 자료수집이 종교적 단체를 통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외로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하여 외로움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지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자의 구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부족한 노동인력을 대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해야 하나, 그동안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집단은 종교조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시대임을 감안해 볼 때 종교적 차원의 봉사나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체

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학적 접근과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1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사회적 지지는 25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외로움 도구는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이 개발하여 개정된 UCLA 고독감 도구로 20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평점 3.73±0.66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 정도는 평균 평점 2.57±0.31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외로움 정도의 차이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외로움 정도는 종교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t=2.586, p=.001)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연구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고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REFERENCES

Chung, K. S. (1999).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oreign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2(2), 61-78.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August 30). *Employment,*

Labor, Wages. Retrieved September 29, 2008, from <http://www.kosis.kr>.

Employment, Labor, Wages data (2008, September 29).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rom <http://www.kosis.kr>.

Kim, M. S., Kim, Y. G., Lee, S. H., Lee, Y. J., & Hong, S. K. (2001). *Report on the health on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Korean Doctors' Weekly, Seoul.

Kim, O. S., Baik, S. H., & Kim, K.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tress, and loneliness in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4), 607-616.

Kim, O. S., & Baik, S.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elderly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3), 425-432.

Kim, O. S.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4), 871-879.

Kuo, W. H., & Tsai, Y. (1986).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2), 133-149.

Laura, S., Morton, B., Miriam, St., & Edward, M. (2005). Providing social support for immigrants and refugees in Canada: Challenges and direction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7(4), 259-268.

Park, J. W. (1985). *A study of developmental on social supports instru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A. Peplau, L. A., & Perlman, D.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18), New York: Wiley & Sons.

Roh, Y. S. (2004).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foreign worker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Sarason, I. G., & Sarason, B. R. (1985).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pplication, Dorrecht*.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Sarason, I. G., & Sarason, B. R., Shearin, E. N., & Pierce, G. R. (1987). A brief measure of social support: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497-510.

Seol, D. H. (1996).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An Exploration of their Influx and Adap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hearer, R., & Davidhizar, R. (1994). It can be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 Care Nurse*, 12(4), 60-65.

Sung, K. T., Han, D. S., & Kim, J. Y. (1997). *The problems and counterplan of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Jip Moon Dang Publishing company, Seoul.